

# 고흥군, 청년 창업몰 '청춘마루' 맛집 입소문

### 2019년 6월 개소 총 7개 청년점포 운영...현재 2기 운영 도양읍 전통시장서 시식회...300여 명 참여 맛 평가 '최고'

고흥군은 지난 23일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도양읍 청춘마루 '청춘몰'에서 입점기업 시식회를 했다고 밝혔다.

도양읍 전통시장 내에 있는 청년 창업몰 '청춘마루'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로 2019년 6월에 개소해 총 7개 청년 점포를 운영해 왔으며, 입점 1기가 지난 4월 23일 3년 임대 기간이 만료돼 공개모집을 하고 2기에 5개 입점 업체를 선발해 2023. 9. 1.부터 운영 중이다.

2기 입점은 식음료 점포의 공간 협소로 이용자와 사용자의 불편이 제기돼 7개 점포를 5개 점포로 공간 리모델링을 해 전점, 카페, 퓨리츠, 수제 청, 공방이 입점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평가해 청춘몰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이날 시식회는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침체해 있던 청춘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양읍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판매 품목을 선보여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군은 시식비 일부와 홍보물을 제공했다.

지난 9월 1일 청춘몰 입점 이후 고흥청춘누리 인스타그램, 고흥 맘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만족하는 매출과 단골도 확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시군의 청년몰이 매출 부진과 영업 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흥 청춘마루는 녹동재래시장과 유기적인 협조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통시장에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



고흥군 청춘몰 '청춘마루'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가운데) 청년들의 날 행사에 녹동 바다정원에서 열린 시식회 모습. (오른쪽) 청년들의 날 행사에 녹동 바다정원에서 열린 시식회 모습. (가운데) 청년들의 날 행사에 녹동 바다정원에서 열린 시식회 모습. (오른쪽) 청년들의 날 행사에 녹동 바다정원에서 열린 시식회 모습.

## 과식하기 쉬운 명절 "광양을 걸어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는 기름에 튀겨거나 굽는 고지방, 고열량 음식이 많고 평소보다 과식하기 쉬운 체중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양시가 가볍게 걸으면서 명절 피로를 풀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걷기 명소로 옥룡사 동백나무숲, 광양마로산성, 배알도 섬 정원 & 망덕포구 등을 추천한다고 26일 밝혔다.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선각국사 도선이 평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몇 개의 주춧돌로 남은 옥룡사지는 도선이 35년간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천년 불교 성지로 뽀뽀하게 둘러싼 동백나무와 대비를 이루며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선사한다.

특히 가을에는 오래된 동백나무 아래 붉게 핀 꽃무릇이 초록색 동백나무 이파리와 보색을 이루며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해발 208.9m 광양마로산성(사적 제492호)은 백제시대에 축조돼 통일신라시대까지 활용된 고대 성곽으로 광양읍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정상부를 중심으로 둘러싸인 테뫼식 산성으로 망루, 건물지, 우물터 등과 마로(馬老), 군역관(軍易官) 등이 새겨진 기와 더미들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준다.

한때 적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마로산성은 고요한 평화를 즐길 수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한가로이 거닐며 사색에 빠질 수 있는 힐링공간이다.

지난 3월 KBS 간판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광양편에서도 멤버들이 마로산성 곳곳에서 명패를 두들겨 치는 등 독특한 사색 장면을 연출해 시청자들에게 활짝웃음을 선사했다.

배알도 섬 정원은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마치포처럼 동그마니 떠 있는 낭만플랫폼이다.

별해는다리, 햇빛아다리 등 2개의 해상보도교로 망덕포구와 수변공원으로 각각 연결돼 있으며 정상의 해운정에 오르면 푸른 섬진강이 윤슬로 반짝인다.

망덕포구는 윤동주의 친필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욱 가족과 윤동주 시 정원 등이 있어 문학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포물선을 그리는 포구를 따라 윤동주의 시를 모티브로 세워진 감성 가득한 조형물들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오래 붙잡는다.

배알도 섬 정원과 망덕포구는 장엄한 일출과 일몰, 월출을 자랑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은은한 경관조명이 설치돼 야간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규영 관광과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엔 자칫 과식하기 쉬운 만큼 옥룡사 동백나무숲, 마로산성, 배알도와 망덕포구 등 광양을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감성과 낭만도 가득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민관심 ↑ 순천시, 올해 12대 추가 설치한다



순천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핸드폰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적립금액, 기기 설치위치, 기기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집 주변에 있는 기기를 검색해 찾아가면 된다.

시는 올해 추가 설치된 12대를 포함해 총 28대의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종이팩용 무인회수기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설치된 기기는 현금 적립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캐시비) 포인트로도 적립되므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민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핸드폰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적립금액, 기기 설치위치, 기기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집 주변에 있는 기기를 검색해 찾아가면 된다.

시는 올해 추가 설치된 12대를 포함해 총 28대의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종이팩용 무인회수기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설치된 기기는 현금 적립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캐시비) 포인트로도 적립되므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민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치유센터 내 약수터 조성 명품 지하수 끌어 올린 '제암골(웅천) 불로샘' 탄생

보성군은 26일 명품 지하수로 선정된 제암산자연휴양림 치유센터의 지하수를 주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암골(웅천) 불로샘' 약수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명품 지하수 선정은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지표(J-INDEX)를 적용하고, 먹는 물 안전성 평가를 중점으로 미네랄 및 기능성 성분 함유량 등의 점수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일반세군, 총대장군군,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제로로 나타나 최고의 청정수임을 입증했다.

또한, 망간과 알루미늄, 우라늄 또한 제로로 나타났으며 잔류염소와 라돈 함량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은 선정 결과를 토대로 제암산자연휴양림 치유센터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를 조성하고 수질 검사와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주민들의 안전한 지하수 음용을 위해 약수터 이용 시 개인 물컵 사용하기, 약수터 주변 깨끗하게 유지하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규모의 숲속에서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 등 모험시 설을 즐길 수 있으며, 산림 내에 56개의 숙박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치유센터에 조성된 '제암골(웅천) 불로샘' 약수터 모습. (가운데)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치유센터에 조성된 '제암골(웅천) 불로샘' 약수터 모습. (오른쪽)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치유센터에 조성된 '제암골(웅천) 불로샘' 약수터 모습.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